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4호 [루게 제 24362호] 주체102(2013)년 11월 10일 (일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원 궁지를 안고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단천시 쌍룡협동농장 농장원 김기혁은 위대성자료와 상식자료를 비롯한 많은 참고자료들을 학습내용에 맞게 반영하고 강의할 때 쉽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실효를 높였으며, 실천적모범으로 지난 10여년간 작업반이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학습강사로서의 책임감을 간직하고 구성 시도시정사업소 로동자 유성희는 3 000여건의 각종 자료와 500여점의 직판물을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학습반원들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

하여 직장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창광원 로동자 강성희도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설득력 있게 함으로써 대중속에서 《우리 학습강사》로 불리어갔다.

30여년간 학습강사를 하고있는 선군군근로자협동농장 농장원 유성호는 정치리론 수준과 강의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위대성자료 1만여건, 자료카드 5 000여건, 이동식걸 그림 150여점을 가지고 강의를 참신하게 하고있으며 농장원들의 사업과 생활도 잘 돌봐주고있다.

평양외국어대학 교원 리경림, 연탄군식료공장 로동자 김원중은 오랜 기간 학습강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를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당초급선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함경북도인민보안국 실장 김광민, 평안북도인민보안국 부원 김영협은 높은 실력을 지니고 학습강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사를 끝없는 영광과 행복속에 받아안은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은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대중의 훌륭한 교양자가 되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고무추동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이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대구의 영원한 영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승평면 분위기에 펼쳐져있다.

대회참가자들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과학기술성과가 련이어 이룩되고 선군조선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절세위원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어찌있는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가지까지 현저

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그들은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과학기술분야에서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

외국인들이 높이 칭송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높이 울려나왔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 아나톨리 불가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의 승리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단결의 중심이시다. 그에게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고계신다.

진보적인류는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은 자기의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외담당 리소스는 김정은동지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명도력, 덕망을 그대로 계승하고계신다. 그이는 참모로 위대한 단결의 중심이시다. 조선인민은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전사들의 위훈을 영원히 빛내어주고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영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감보자 언트리 미예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발행식에서 출판사 사장 네트조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한다.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전적로작들

을 계속 출판함으로써 그분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감보자 인민들속에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쫓아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의 혁명농장들》이

강출판사에서 최근에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결한 수령이시디》를 키르그리스탄의 비부스-아마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본사기자

모두 다 올해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대중을 고무추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제선동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입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장조각으로 불려일으키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시령군인민군인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누구나 올해를 몇몇이 총화할수 있도록 화선적정사업들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도의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마시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동예술훈동대활동과 방송선전전야를 통한 선전선동활동을 적극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전투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모든 선동원들이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들끓는 전투장들마다에서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장조각으로 불려일으키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시령군인민군인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누구나 올해를 몇몇이 총화할수 있도록 화선적정사업들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도의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마시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동예술훈동대활동과 방송선전전야를 통한 선전선동활동을 적극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전투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평안북도 각급 당조직들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격동적인 시대적요구에 맞게 도예술훈동대예술훈동대 활동에 내보내어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도록 하였다.

선전선동활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경제건설의 주력방향인 농업과 공업업을 비롯한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도의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열의에 넘쳐 당면한 난관들을 와닥닥 다그쳐 풀기 위한 총돌군을 벌려나가고있다.

락원시의 로동계급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군주속도, 《마시령속도》창조를 위한 당의 선전선동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선동열을 힘있게 벌려 유망성공과기과 대상설비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평안북도간지선전선동부에서

세로등판건설 인민보안부들격대서

새로등판건설 인민보안부들격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하며 대상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초현재 이들은 100여동의 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살림집, 집집승우리, 공공건물 수십동을 완공하였거나 모든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것이 속도전의 요구이며 당의 의도입니다.》

인민보안부들격대 지휘관들은 올해안으로 목표한 건설공사를 완결을 위한 전투적열을 받들고있다. 그들은 인민보안부 책임일군들과의 긴밀한 령계밑에 건설자재들을 자재로 해결하여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구체적 일 계획을 세우고 내밀었다. 이들은 시작부터 일관을 통이 크게 벌

려 120여t의 강재를 비롯하여 많은 건설자재들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기와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건설자재들이 확보되는데 맞게 지휘관들은 집중수송을 조직하여 건설속도를 높여나가고도 하였다. 이와 함께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시공지도에도 힘을 쏟았다. 결과 살림집, 집집승우리, 온실, 공공건물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한성남도인민보안국의 군인건설자들이 살림집과 집집승우리들을 남면저 건설하였다.

전국공사를 남면저 끝낸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방목공들의 생활상편의와 문화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힘과 열의를 기울였다. 군인건설부부부기기를 철저히 하였다. 그리하여 계획된 7동에 14세대의 살림집을 손색없이 완공하고 1동의 양우리건축공사도 끝냈다.

평안남도인민보안국의 군인건설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지형조건이 불리한 지대에 살림집구역을 형성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2 500여㎡의 뚝쌓기와 1 000여㎡의 도로건설을 앞세워 지대정리를 맡김이 끝내도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법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당면한 6동의 살림집과 2동의 양우리건축공사를 끝냈다.

9동의 살림집과 1동의 집집승우리건축공사를 끝낸 평안북도인민보안국 군인건설자들은 올타리건설을 질적으로 하고 모든 세대들을 먹는물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공사도 하였다.

함경북도인민보안국 군인건설자들은 장마철에 무더기비가 내리도록 끔찍하게 건물주변의 물도랑치기와 뚝쌓기를 질적으로 하면서 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본사기자 정영철

버섯공장건설과 개건공사 마감단계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고 펼쳐나간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버섯공장건설과 개건공사를 전투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주력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다.》

지난 7월 인민군대의 어느 한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런 버섯공장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하여 우리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하여서 현대적인 버섯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표준설계를 내려보내주고 버섯재배기술과 경험을 보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내각과 해당 기관에서 최단

기간내에 완성한 표준설계를 보내주시고 표준화공정설비를 비롯하여 각 도들의 버섯공장건설에서 제기되는 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크나큰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각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게 불타는 마음과 고 능력이 큰 버섯공장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강원도에서 버섯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버섯공장건설을 틀어쥐고 본매있게 내밀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버섯공장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원하여 마련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여기에 고무된 근로자들은 기본생산건물과 보조건물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있다. 동시에 종합

질문제기, 기질멸균, 난방보일러 등 버섯공장에 필요한 설비제조를 힘있게 하고있다. 해제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양도와 함경북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마시령군인민군인설자들의 투쟁기풍으로 버섯공장건설을 드세게 내밀고있다. 향양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추위가 빨리 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사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워놓고 그날과제에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고있다. 함경북도에서는 버섯제조와 출하치기 등을 와닥닥 해제하며 기본생산건물, 여러동의 중용식탁막은실과 보조건물들에 대한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다.

남포시, 라선시, 평안남도에서도 버섯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지대적특성에 따라 강병이숙, 난달질, 톱밥을 비롯하여 기질원료 확보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고 있다.

각 시, 군, 구역들에서도 버섯공장과 버섯재배기건설 및 개건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창군, 회창군, 연탄군, 평산

올해의 메를 전부 내렸다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

들은 드세한 공격전을 벌려 물리친 메를 전부 내렸다. 메들이 자재준비를 충분히 한 데 기초하여 매일 많은 메를 내렸다.

자서, 통하, 부전림산사업소의 류별공들은 물결상태, 시설물의 배치, 물문높이와 물흐름 속도 등을 잘 타산하면서 부단히 변하는 물결조건에 맞게 능숙한 솜씨로 메를 몰아갔다. 날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 정마

를 다루어가며 통나무 고르기 및 메동맹이치기를 비롯한 메무이진투를 다그쳤다. 련합기업소산하 공장들과 직장들의 전투원들도 메무이작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상장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통나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면서 뿔뿔길에 의한 사이나르기를 적극 따라세워 많은 통나무를 메무이장에 련속 운반해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이해의 메를 전부 내린데 이어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신홍혁 찍음

과학기술인재의 대부대를 키우신 위대한 스승의 령도의 손길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 인민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가 곧 진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 아래 지식인대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사적회합을 앞둔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은 절세위인들께로 쫓아나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한평생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내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며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의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져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오늘도 탁월한 령도로 과학기술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며 내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천하에 떨쳐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은 탁월한 령도로 이 땅위에 과학기술인재의 대부대를 마련하시며 강성국가건설의 든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과학기술중성정치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크나큰 품을 들이시며 키워주신 지식인대부대는 우리 민족의 재부로, 강력한 국력을 담보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그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께서는 우리가 일떠세운 세계적인 창조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 당이 내놓은 민족간부양성방침과 당마크에 마치고 낮과 함께 붓을 새겨넣은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느끼곤 한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업적은 사상도 령도도 품도모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인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아래 혁명의 세대와 년대를 이어 련련히 이어져 빛을 뿌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중성시대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선으로 제시하시고 사상중시, 총대중시로선과 함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중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구현해오시는 탁월한 정치경륜을 펼치시었다.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조하시었다.

과학기술을 정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의 단단사선이 어려웠다.

제일이 사랑하시는 인민, 천만군을 다 들여서라도 더욱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우리 인민이 허미미를 조여매고 간고분투하는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안락한 자음을 나라의 국력,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돌리시어야만 했단 우리 장군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시었던가. 그러나 그로록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그이께서는 그 누가 내 마음 몰라 취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고 몇번이나 외우시며 나라의 얼마 안락한 자음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일, CNC화에 돌리시는 대응단을 내리시었다.

지난해 7월말,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기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세기 새기 산업혁명을 안아 CNC화를 놓고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가 얼

어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것을 알수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지금도 2010년 1월 CNC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에게 CNC에 대하여 정열적으로 알려 주시면서 CNC화의 첫걸음을 때때로 그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식량이 모자라고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생각이 많으셨지만 부강할 조국의 패를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시었다.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렀지만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신것은 변혁저러는 남의 기계를 사오는것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힘을 키워

우리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려는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가 안아온 대우단이었으며 최상의 선택이었다. 사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 힘이 강해야 조국도 지기고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노래 《돌과하마 최첨단을》을 들으실 때마다 CNC화 실현을 위하여 헤쳐온 험난한 길들과 마음쓰던 일들이 되새겨져 눈물을 흘리시곤 하였는데 그 눈물은 진정 뜨거운 애국의 눈물이었다. ...

우리 장군님은 그저 위인이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다 칭송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그 누구나 따르는 절세의 애국자이시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은인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결론에서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부강조국건설과 그 미래에 대하여 생 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계 정 뜨거운 애국의 눈물이었다. ...

우리 장군님은 그저 위인이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다 칭송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그 누구나 따르는 절세의 애국자이시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은인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시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 회한하게 솟아올라 우리 과학자들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소리 울리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사상, 과학중시정책의 고귀한 산이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 제일의 존엄과 행복을 안겨주시며 친히 산업건설을 맡기하시며 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주시었다.

건설의 나날 그이께서는 건설장을 찾으시고 바락차리는 어떻게 하며 부업에는 타일을 붙여주는가, 마감장에는 어떤것을 쓰려고 하는가를 일일이 물으시고 손색이 없이 꾸러주라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금방식에 앉혀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금방식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자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품소 지어주신 그림도 유명한 은하과학자거리!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 과학자들을 끌고 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전하며 이곳에서는 온 늘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소 지어주신 그림도 유명한 은하과학자거리!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 과학자들을 끌고 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전하며 이곳에서는 온 늘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소 지어주신 그림도 유명한 은하과학자거리!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 과학자들을 끌고 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전하며 이곳에서는 온 늘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울려 퍼지고있다.

영원한 태양복을 누리는 크나큰 금지

세계적인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내 나라, 내 조국의 금지로운 그 부름들과 더불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과학의 높은 평마루를 걸명해나가는 미더운 영군들로 키워주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력력히 빛발쳐온다.

전후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우리 수령님의 연설은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필승의 신심을 배태해주었고 친박자들에게는 멸적의 퇴적이 되어 울려 퍼지었다.

전하의 불길속에서 과학원을 창립해 주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업적은 또 얼마나 현명한것인가.
그뿐이 아니다.

가렷이 걸친 그 나날 과학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과학자들에게 실험기구와 시약을 보내주시며 과학연구사업조건을 일일이 보장해 주신 이 이야기며 포연속을 쫓고 김일성종합대학과 당시의 김책공업대학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력력히 빛발쳐온다.

어버이수령님은 일찍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형상한 마치고 낮과 함께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대를 새겨넣으시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 은인이시었다.

원수님 모시며 창창한 미래

주체조선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가 지구를 박차고 만리대륙에 날아오른 격동적인 화풍이 오늘날 더욱 신명히 어려온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에서 성공한것은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만방에 떨치게 하고 시한력사적정거이며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이다.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로 자란 우리의 미더운 과학기술진수들과 동맹계급은 피라는 탐구와 노력으로 모든것이 100% 국산화된 과학기술 위성을 제작하고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원수님 모시며 창창한 미래

혁명의 수도 평양에 회한하게 솟아올라 우리 과학자들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소리 울리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사상, 과학중시정책의 고귀한 산이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 제일의 존엄과 행복을 안겨주시며 친히 산업건설을 맡기하시며 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주시었다.

원수님 모시며 창창한 미래

혁명의 수도 평양에 회한하게 솟아올라 우리 과학자들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소리 울리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사상, 과학중시정책의 고귀한 산이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 제일의 존엄과 행복을 안겨주시며 친히 산업건설을 맡기하시며 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주시었다.

원수님 모시며 창창한 미래

혁명의 수도 평양에 회한하게 솟아올라 우리 과학자들의 기쁨과 행복의 노래소리 울리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사상, 과학중시정책의 고귀한 산이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 제일의 존엄과 행복을 안겨주시며 친히 산업건설을 맡기하시며 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주시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27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27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27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27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27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27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27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27일 평 양

당과 국가의 책임 일군들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

【평양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9일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서 그 무엇보다도 이르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마련된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게 된 크나

큰 금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숙소를 찾아 대회참가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지난 기간 최첨단과제들의 불길높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경제개발건설에 적극 기여한 자랑스러운 대회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믿음과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인

이 가까울것을 차근차근 일러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1회전은 비긴 가운데 끝나게 되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너무나 훌륭하시어 허헌선생은 기쁨을 풀고 다음경기에 온 정신을 쏟게 되었다.

역시 장기명수였던 허헌선생이라 그는 흥그러워진 분위기속에서 인차 랑랑하며 여쭙던 장기소리를 내었다. 무릎까지 두드러가며 허헌선생은 수령님의 묘수에 감탄하기도 하였고 장훈을 불러가며 장기를 두었다.

허헌선생이 오랜 장기군담에 매번 공복을 들이내었지만 우리 수령님의 방아앞에서는 어찌 할수 없었다.

비록 경기는 끝나 밤은 깊어가도 허헌선생의 가슴에는 따스로운 정과 열의 화신인 우리 수령님에 대한 탄복과 고마움이 더욱 커졌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0월 31일 평 양

눈물속에 펼쳐진 장기경기

은 잘 드는가, 식량과 부식물은 제대로 공급받는가 등 생활행편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었다.

하나로하신분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지 불편한 점이 많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조금도 사양하지 말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따듯이 이야기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허헌선생의 가슴에 뜨거운 경정이 불꽃처럼 차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중 시비하는 모양인데 나는 인생을 믿는다고,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하는 오직 단념을 믿고 힘과 용기를 내어 일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말씀을 주시었다.

그때 일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허헌선생이 당의 높은 신임을 받는데 대하여 질투하면서 이러저러한 뒤시비질을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안에 들어서서 손수 구두도 짚어보시며 불

은 잘 드는가, 식량과 부식물은 제대로 공급받는가 등 생활행편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었다.

하나로하신분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지 불편한 점이 많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조금도 사양하지 말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따듯이 이야기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허헌선생의 가슴에 뜨거운 경정이 불꽃처럼 차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중 시비하는 모양인데 나는 인생을 믿는다고,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하는 오직 단념을 믿고 힘과 용기를 내어 일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말씀을 주시었다.

그때 일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허헌선생이 당의 높은 신임을 받는데 대하여 질투하면서 이러저러한 뒤시비질을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안에 들어서서 손수 구두도 짚어보시며 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슈가베트
두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브각하

나는 두르크메니스탄공화국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2(2013)년 11월 8일 평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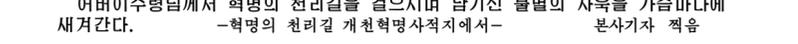
최첨단들과의 기동

이에 대한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에 서있는 일군들에게 지난날 간장 생산방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원 리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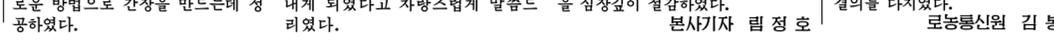
그러시고 그 간장은 맛이 정말 좋다고, 얼마전에 이 직장에서 만든 간장을 먹어보았는데 맛이 독특하다고, 이 간장은 확실히 맛이 좋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간장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이 직장에서 만든 간장을 보통간장을 비롯한 상점들에 내다 팔도록 해야 한다고 은정어린 조치로 당부하시었다.

인민들이 새로운 간장맛을 볼수 있게 된것이 그리고 기쁘시게 된 한 웃음을 짓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공장일군은 자기들이 로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이처럼 특이한 맛좋은 간장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었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남기신 불멸의 자욱을 가슴마다에 새겨간다. -혁명의 천리길 개천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적음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남기신 불멸의 자욱을 가슴마다에 새겨간다. -혁명의 천리길 개천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적음

겨울철석탄과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 나래 친다

올겨울의 석탄생산량의 하나인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 란 광인들이 석탄생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1년 단계를 지난 10월 14일까지 빛나게 수행한 남양탄광 7경 차광수정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하여 연합기업소내 모든 탄광들의 결집으로, 석탄생산대원들이 뜻깊은 올해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기 위하여 《마식령수도》창조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올해 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선언을 받은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심정은 뜨겁게 고동쳤다. 당의 전투적 호소와 결사투쟁을 받들고 펼쳐나선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연합기업소에서는 올해에 정령해야 할 목표를 통이 크게 내세웠다.

연합기업소적 인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제1탄광 3단계벨트베어공사와 능력이 큰 베타운반계통공사, 수천톤의 대장량을 가진 남양탄광 8경과 덕천탄광의 덕용갱을 비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

롯하여 큰 20개 대상의 생, 새 구역개발...

현행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하면서 대량 전력화장공사와 석탄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연합기업소일군들은 결코 주어진 조건과 환경만을 따지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경제강국건설의 최후방, 개척자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결사의 실천으로 보답하자.

일군들과 탄부들모두의 심장마다서 이런 총성의 맹세, 결사투쟁의 의지가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속에 총돌격전이 개시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할수 있다는 투철한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완강한 공격전으로 석탄생산을 돌파구를 열기 위한 대담하고도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여기에 령향을 집중하였다.

구체적인 작전에 따라 지배인, 책임직, 기사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적 인 일군들부터가 앞장서서 결집대원에 내려

갔다. 연합기업소와 탄광들의 일군들이 매 결집작전을 맡고 내려가 그들과 함께 착안도 하고 자체보장대책도 세워주면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제1탄광에서 3단계벨트베어운반계통공사와 주공수정년돌격대원들의 결집으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제1탄광에서 3단계벨트베어운반계통공사와 주공수정년돌격대원들의 결집으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사창청년탄광 2경 최순철고속도굴진대원들과 5경 김철고속도굴진대원들은 하루 굴진계획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사창청년탄광, 형봉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의 굴진대원에서 소대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가장부인들로 무어진 가족소대들의 물심장적인 힘있는 지원은 연합기업소적 인 결집성과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말마다 진행된 작업결집정기회를 비롯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올해에 들어와 10여 개의 새 구역들이 조업함으로써 수십만t의 석탄생산능력이 새로

조성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1탄, 남양탄광에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제1탄광에서 3단계벨트베어운반계통공사와 주공수정년돌격대원들의 결집으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사창청년탄광 2경 최순철고속도굴진대원들과 5경 김철고속도굴진대원들은 하루 굴진계획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사창청년탄광, 형봉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의 굴진대원에서 소대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가장부인들로 무어진 가족소대들의 물심장적인 힘있는 지원은 연합기업소적 인 결집성과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말마다 진행된 작업결집정기회를 비롯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올해에 들어와 10여 개의 새 구역들이 조업함으로써 수십만t의 석탄생산능력이 새로

조성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1탄, 남양탄광에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제1탄광에서 3단계벨트베어운반계통공사와 주공수정년돌격대원들의 결집으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사창청년탄광 2경 최순철고속도굴진대원들과 5경 김철고속도굴진대원들은 하루 굴진계획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사창청년탄광, 형봉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의 굴진대원에서 소대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가장부인들로 무어진 가족소대들의 물심장적인 힘있는 지원은 연합기업소적 인 결집성과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말마다 진행된 작업결집정기회를 비롯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올해에 들어와 10여 개의 새 구역들이 조업함으로써 수십만t의 석탄생산능력이 새로

조성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1탄, 남양탄광에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제1탄광에서 3단계벨트베어운반계통공사와 주공수정년돌격대원들의 결집으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사창청년탄광 2경 최순철고속도굴진대원들과 5경 김철고속도굴진대원들은 하루 굴진계획을 1.5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사창청년탄광, 형봉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의 굴진대원에서 소대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가장부인들로 무어진 가족소대들의 물심장적인 힘있는 지원은 연합기업소적 인 결집성과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말마다 진행된 작업결집정기회를 비롯한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올해에 들어와 10여 개의 새 구역들이 조업함으로써 수십만t의 석탄생산능력이 새로

조성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1탄, 남양탄광에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제1탄광에서 3단계벨트베어운반계통공사와 주공수정년돌격대원들의 결집으로 생산능력화장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석탄이 자 곧 전력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언과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을 추켜세워야 한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더 많이 캐내야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고 겨울철에도 끄떡없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정상화의 동력을 힘차게 펴줄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이리 마련된 자립적대구가 은을 내게 하고 현대화,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큰 힘을 쏟으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쌓기등으로 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이 현행생산량을 계속 다그치며 겨울철생산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막강하게 직접 들어가 실행을 구체적으로 로해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이하면서 혁신적인 안목과 과학적인 타산, 주도세밀한 작전으로 4, 4분기에 이어 본격적인 겨울철에도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도록 그 준비사업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야 한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겨울철에도 석탄생산량을 부단히 높이자면 결집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태세를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탄광들에서 결집정기를 더욱 보강하고 올해전투목표에 반영된 결집계획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새 생, 새 구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전방성있게 내밀고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의한 확보탄량을 늘임으로 올해뿐 아니라 다음해에도 석탄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탄광들에서 겨울철조건에서도 석탄생산량을

늘일수 있게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질적으로 하며 운반로선관리를 잘하여 전차와 탄차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체보장사업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탄광들에 소철레퍼와 쇠바줄을 비롯한 자재와 철장계를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탄광부문에 생산적양양의 불길높이 등발나무를 탄광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며 철도운수부문에 기관차, 화차들의 실행률을 높이는 데 모를 막고 수송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탄광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이 제때에 탄광에 가량해 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탄광들의 운영과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물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석탄이 자 곧 전력이다. 전력공업부문에 증산투쟁을 과감히 벌려 탄광들에 질 좋은 전기를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며 지금 진행중이 있는 화력발전설비들의 대다수 및 증보수를 무조건 제기하여 끝내고 겨울철전력생산도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탄광지원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각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수천척지마작에서 누가 보던말건, 앞이주말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나가고자 온갖 생의를 다해 탄광을 물심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탄광부문의 로동계급이 지닌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기대와 믿음을 순간도 잊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겨울철석탄생산을 비롯하여 각종 올해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자랑스런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수차효률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넣어

허천강 발전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선언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물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계속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수차들의 효율을 더욱 높이는 데 큰 힘을 넣고 대 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수차효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전력공업부의 기밀한 력기밀에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면서 1호발전소의 수차바기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고있다.

발전소의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이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참담히 이바지할 임업을 안고 대 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수차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다.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고 심어진 탐구와 피리는 노력을 기울여 여러 발전소들에 적용할수 있는 발전소들의 로동계급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수차바기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와 조립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있게 수행하였다.

발전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수차바기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와 조립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있게 수행하였다.

기술발전과 시험실, 기술혁신작업반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파루로부터 수차를 비롯한 발전설비들을 종합적으로 보충관리할수 있는 새로운 장치제작과 로력을 다그치면서 가지는 기술혁신인들을 령이 고 받아들이는 것은 물량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1호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수차바기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와 조립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있게 수행하였다.

발전소의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이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참담히 이바지할 임업을 안고 대 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수차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다.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고 심어진 탐구와 피리는 노력을 기울여 여러 발전소들에 적용할수 있는 발전소들의 로동계급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수차바기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와 조립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있게 수행하였다.

발전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수차바기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와 조립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책임있게 수행하였다.

발전설비대보수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발전설비대보수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있다. 특히 대보수과제가 기본적으로 끝난 초기의 시운전을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계단위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지금 진행중이 있는 호기대보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전기보수과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합리화안을 적극 받아들여면서 각종

모래땅에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다

정평군 동호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

이미전에 작업반기술원으로 사할 때 그는 강랑도입시범을 해보았다. 작업반의 논밭과 정평의 일정한 면적에 강랑을 파고 논벼와 강랑이, 감자, 콩을 심었다. 결과 논벼와 강랑이 는 물론 기타 작물들의 생산량도 높여냈다.

그 경험을 놓고 라산철보너 강랑을 적극 리용하면 알곡 정보당 수확량을 늘일수 있다 는 확신이 생겼다. 강랑을 잘 리용하면 비로시비후 인차 그 성분이 새어나가는 모래 땅의 미세한 구멍들을 일정한 막으며 가을철에 의 해 강랑이밭의 모래가 날라가고 영양분이 남는 현상을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농장원들과 지체를 합쳐 굴작기형식의 작업도구를 만들어 도입하여 하루 40이상의 강랑을 파낼수 있게 하였다. 기름이 강랑한 조건에서 그는 강랑 운반에 달구지를 적극 리용하기 위해 부림소마리수를 늘이는 사업을 동시에 내밀었다.

농장원들은 자체로 생산한 약초를 리용하고 거친먹이 는 바다물초를 잘 먹이면서 등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 하여 분조마다 부림소마리수가 늘어났다. 그렇게 하니 강랑을 받들 원만히 한것은 물론 기름 생산도 더욱 늘어나 그야말로 일기향두였다.

강랑리용도 실정에 맞게 하였다. 우선 강랑을 카바이제와 섞어 논밭에 파놓았다. 또한 강랑을 모판벼기름과 강랑이영양

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

강원도 립업 관리국에서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의 수리정비, 산지합숙건설 등 통나무생산에 힘차게 펼쳐나선 강원도 립업 관리국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림업부문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대한 령도를 잘 잡아야 하며 겨울철에 모든 로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들어가 기에 앞서 관리국에서는 통나무

관리국의 일군들은 모든 로력과 설비를 통나무생산에 집중시키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현지에서 결된 고리제와 제때에 풀이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겨울철통나무생산준비를 남 먼저 끝낸 관료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무베기를 적극 밀고나가는 한편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통나무운반에서 련일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다이어생산계획 넘쳐 수행

하성다이어생산계획을 104% 달성

하성다이어생산계획을 104% 달성했다. 공장에서는 뜻깊은 올해 대형다이어생산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년초부터 연료, 원료보급을 앞세우면서 생산을 드세게 내밀었다.

다이어생산에서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고 공간관계를 잘 맞물려 매일 생산을 높여냈다. 원료, 열도력장치의 로동계급은 원료배출, 열보장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요구대로 진행하였다. 공무, 자체, 운수부문의 기계설비들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과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 튼튼하게 가동률을 높여 계획수행에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김 중 훈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품이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파자를 많이 생산

하고있는 창성식료공장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 중 훈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품이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파자를 많이 생산

하고있는 창성식료공장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 중 훈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품이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파자를 많이 생산

하고있는 창성식료공장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 중 훈

민족이 알고 조국이 사랑하는 대문호, 참된 애국가

김일성상제관인, 조국통일상수상자인 작가 조경출선생의 창작생애를 더듬어

민족수난의 시기부터 위대한 로동당시대 번영기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인 조경출선생은 북과 남 온 겨레가 아는 지명한 작가였다.

지난 20세기 우리 민족의 극적인 운명사를 체험한 특이한 작가인 그는 현대조선문학사의 거의 모든 년대기들을 대표하는 명작들을 창작함으로써 하여 오늘날 역사적인 인물로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있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다.》

조경출선생만큼 겨레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고 사후에도 민족의 추억속에 그 이름이 빛나는 작가는 찾아보기 드물다. 눈물과 기쁨, 수난과 영광으로 이어진 그의 극적인 운명과 민족사에 새겨진 빛나는 이름은 작가라하면 누구나 지니고 싶어하는 부름, 민족의 작가라는 고귀한 영성은 어떻게 차려지는가에 대한 생동한 대답으로 된다.

문예 성취가 많았다고, 앞으로 우리의 가국을 이런 방향으로 민족적창취가 풍기도록 발전시켜야겠다.》

민족적창취가 풍기도록!

비록 길지 않은 가르치심이었지만 조경출선생의 심장에 외닿는 충격은 참으로 컸다. 정녕 그것은 우리 겨레만이 아닌 주제문학이 나아가길 길을 밝혀준 명쾌한 대답이었다.

복받치는 창작적열정과 환상을 안고 이어 그는 연극 《대선진군》을 비롯한 민족적창취가 될 수 있는 민족을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으로 불러일으키는 명작 《조국보위의 노래》를 창작하여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불타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작가적직업을 꽃피워주고 빛내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애추과 충성의 정으로 더욱 승화되었으며 사회주의 우리 계도에 대한 찬가, 일심단결의 찬가를 끝없이 낳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있어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기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현실을 원고지에 다 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그로 하여금 고희의 나이에 도 붓대를 놓지 못하게 하였으니 응축된 그 서정이 총폭발되어 태어난 한련의 유명한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은 오늘날 당창건기념일경축공연무대에서, 아니 당을 따르는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끝없이 울리고있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나는야 한마루 진달래로 피리엔》

20살 흉안에 발표된 처녀작에서는 나타내지 않은 민족의 설움을 씌으며 눈물의 탄식만을 엮은 그가 80고령에 이른 인생의 황혼기에는 우리 당을 따르고 바라는 우리 인민의 깨우치고 굳센 심정을 그들듯 뜻있는 시구로 터쳐놓았었다.

발과 낫처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이 극적인 창작세계에 압축에서 광명으로 솟구친 조경출선생의 생활과 작가적체험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눈물의 《락화류수》로부터 신념의 붉은 진달래로!

조경출선생의 극적인 운명사는 민족과 더불어 자기의 참된 삶을 빛내주고자 하는 애국적가치들에 참으로 귀중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민족의 자랑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세계 여러 나라의 력사와 문화도 한히 꿰고있었으며 한문에도 밝았던 조경출선생의 남다른 재능을 믿고 당에서는 그에게 고전소설의 유익을 맡겨주곤 하였다.

그때마다 주저없이 방대한 양에 달하는 고전소설의 유익을 그처럼 짧은 시간에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들속에서 《세없는 고전작가》로 불려올수 있었던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믿음에 높은 실력으로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살아온 그의 불굴의 창작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경출선생은 무서운 정열가였다. 그는 수십년간 문예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책임직을 맡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가 작품창작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추궁할 사람은 없었다.

《락화류수》로부터 진달래로

작가와 작품은 한 민족의 지성과 재능의 높이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헤이커피어나 레브 톨스토이, 유고나 발자크, 로빈슨은 작가들이다 그 나라와 민족의 문화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문호들이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세상에 자랑할만한 대문호들이 있으니 그들중 한사람이 바로 조경출선생이다.

그는 한생애 실로 많은 문화적재부를 남겨놓았다.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계몽기가요 100여편 창작, 《조국보위의 노래》, 《열륙소아 어서 가자》, 《압록강 2천리》 등 여러편의 장시, 《홍루몽》의 대본과 가사 창작... 문학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글들을 창작하였을뿐 아니라 그 수가 1,000여편에 달한다고 볼 때 이런 다재다능하고 열정적인 작가를 배출한것은 조선민족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경이아 했어도 그는 작품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단순히 문학에 대한 사랑때문만이 아니라, 겨레에 대한 사랑, 얼얼한 식민지통도 대우에 반드시 비쳐들고야말 해빛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하여 그는 예민결민 피로운 생활의 세파를 훌훌로 헤쳐나가야 하는 간고한 속에서도 뜻대안은 놓지 않았고 문단만은 떠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것은 《불은작가》라는 억울한 루머였고 경찰서의 쇠고랑이었다. 당국의 그 세월 조경출선생에게 있어서 창작은 그대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니 그가 지은 비가들과 서정가요들은 말 그대로 눈물머금고 떨어지는 《락화》였고 두견새의 피털은 울음소리였다.

애국심은 있어도 우국의 삶은 마음만을 안고 떠돌아다녀야 했던 나그네시인, 정녕 평범치 그 꽃잎, 버펄발은 인생에 재생의 해빛이 비쳐들 날은 언제일것인가, 이런 한가닥 희망안고 살아가던 그에게 광명의 새소식이 전해졌다.

정녕 그때 조경출선생의 심정은 그 얼마나 새한 경적으로 놀랐던가.

비밀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작품만이 아니라 붓을 쥔 작가의 운명까지도 끝까지 보호해주시는 절세위인의 그들듯 크나큰 믿음은 평민시인에서 태어나 《집없는 천사》마냥 여기저기 방랑하며 눈물의 시구절

창조의 나날을 회고하시면서 그때 조경출선생을 비롯한 몇몇 작가들이 기본축이 되어 국가대문을 썼다고, 1960년대에 창작한 여러 작품들중 저의다 조경출선생이 썼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하지만 위인이 있어 작가도 있거늘 조경출선생은 생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창작하던 나날을 잊지 못해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저를 가르쳐준것을 말했을 때 나의 심정은 새겨진마를 뎀 아기가 황소고삐를 띠던적이였다.

그때했던 내 창작정신을 이끌어 붙잡아 주시던 위인 조경출선생의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작품을 풀이하게 아주 잘 만들었다는 높은 치하를 받아안수수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영광. 결코 천성적인 문학자정감이나 남다른 창작적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행복한 작가로 될수 있었던 위대한 스승이 나에게 계시기때문이다. 가극창조의 나날은 그대도 나로 하여금 로동당시대의 조영출로 다시 태어나게 한 재생의 나날이었고 또 하나의 혁명대학을 나온것과 같은 소중한 수업의 연속이었다.》

문학애인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국가창조의 나날을 보는데 파도에 작가 조경출의 창작적직능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커진다고.

특유하면서도 풍만하고 자유방랑한 언어구사, 구수한 토강내와 고풍잡트락의 짙레 맛까지, 기묘한 풍자어는것만 같은 향토의 서정, 그물치듯 두아하고 풍동적인 문체의 활용...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그의 작가직기를 단순한 손길의 재간으로써가 아니라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열도로 하여 더욱 빛을 뿌리었다.

조선민족의 고대와 근대, 현대역사는 물론

민족의 자랑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세계 여러 나라의 력사와 문화도 한히 꿰고있었으며 한문에도 밝았던 조경출선생의 남다른 재능을 믿고 당에서는 그에게 고전소설의 유익을 맡겨주곤 하였다.

그때마다 주저없이 방대한 양에 달하는 고전소설의 유익을 그처럼 짧은 시간에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들속에서 《세없는 고전작가》로 불려올수 있었던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믿음에 높은 실력으로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살아온 그의 불굴의 창작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경출선생은 무서운 정열가였다. 그는 수십년간 문예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책임직을 맡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가 작품창작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추궁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일생, 순간도 펜을 놓지 않았다.

시골소년과 같이 순박하고 칼날우에도 설수 있을만큼 정의감이 강하였던 그는 생활에서 그 어떤 잡념을 몰았다. 오직 창작, 창작밖에 없었다. 그만큼 현실근정의 열도가 용광로의 쇠물처럼 뜨거웠다. 정치를 모르는 시계초침처럼 사색을 멈추지 않았고 번뜩임을 쓰는 순간에조차 새로운 착상이 번갯고 떠오르던 무릎을 치며 책상으로 다가가곤 하였다. 옷주머니에는 늘 종이조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새로운 착상을 기록하고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옮기는 원고지를 대신하곤 하였다. 본인자신이 달라고한것은 그 글들 단순한 원고지에 쓴것이 아니라 정대로 들에 글을 새기듯 한 글자한글자 쓰여져있었다.

운신력이조차 힘든 고희의 나이에는 또 어찌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작품을 지도 해주시면서 조경출선생이 왜 배워지 않는다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침상에 매인 몸이 된 자신을 일찍이라도 죽시 침대에 누워 글을 쓸수 있는 의욕적생명을 만들었다. 안경을 3~4개 끼고도 모자라 확대경까지 사용하며 글을 썼다. 《홍루몽》이라고 쓴 표지를 문에 걸어 놓고 하루 24시간을 그야말로 분분초초조조가 창작에 전념하였으니 이런 불굴의 인간이 태어난것을 어떻게 해가게 할수 있겠나 아니더냐고 생각하며 글을 새기듯 한 글자한글자 쓰여져있었다.

운신력이조차 힘든 고희의 나이에는 또 어찌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작품을 지도 해주시면서 조경출선생이 왜 배워지 않는다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침상에 매인 몸이 된 자신을 일찍이라도 죽시 침대에 누워 글을 쓸수 있는 의욕적생명을 만들었다. 안경을 3~4개 끼고도 모자라 확대경까지 사용하며 글을 썼다. 《홍루몽》이라고 쓴 표지를 문에 걸어 놓고 하루 24시간을 그야말로 분분초초조조가 창작에 전념하였으니 이런 불굴의 인간이 태어난것을 어떻게 해가게 할수 있겠나 아니더냐고 생각하며 글을 새기듯 한 글자한글자 쓰여져있었다.

조경출선생이 민족가극 《춘향전》을 훌륭히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훌륭하다고,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작품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안게 된것은, 고희의 나이에도 민족가극 《심청전》창작에 붙이는 정열을 바칠수 있었는 것과 그 오로지 민족과 문화, 혁명과 시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왔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체현할 조경출선생의 높은 실력과 불타는 열정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참으로 컸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조선의 대문호라고 존대하여 불러주시며 무대예술로서에서 하나의 작품이 창작되면 조경출선생이 그 작품을 보았는가고, 그가 좋다면 보자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곤 하시였다.

어머나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주신 조경출선생이 청춘의 활력을 안고 작품창작에 전념하도록 고무승용하며 100년 복은 산 삶을 보내주시는분도, 주제 82(1993)년 2월 어머니수령님을 모신 영랑의 자리에 도내내주시어 그가 수령님앞에서 마음속직정을 헌가 《위대한 명절》에 담아 한껏 터치도록 하여주시는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퍼나 오래되었던 어느해엔가는 가극 《홍루몽》을 보아주시며 이 가극은 조경출선생이 대본과 가사를 잘 썼기때문에 빛이 나는것이었고, 가극의 가사들은 어찌 하나하나가 다 금옥같은 어휘들로 다듬어져있었고, 웅대한 작가는 가극 《홍루몽》과 같은 작품을 각색해내지 못한다고, 조경출선생은 확실히 대문호이

민족의 자랑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세계 여러 나라의 력사와 문화도 한히 꿰고있었으며 한문에도 밝았던 조경출선생의 남다른 재능을 믿고 당에서는 그에게 고전소설의 유익을 맡겨주곤 하였다.

그때마다 주저없이 방대한 양에 달하는 고전소설의 유익을 그처럼 짧은 시간에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들속에서 《세없는 고전작가》로 불려올수 있었던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믿음에 높은 실력으로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살아온 그의 불굴의 창작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경출선생은 무서운 정열가였다. 그는 수십년간 문예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책임직을 맡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가 작품창작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추궁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일생, 순간도 펜을 놓지 않았다.

시골소년과 같이 순박하고 칼날우에도 설수 있을만큼 정의감이 강하였던 그는 생활에서 그 어떤 잡념을 몰았다. 오직 창작, 창작밖에 없었다. 그만큼 현실근정의 열도가 용광로의 쇠물처럼 뜨거웠다. 정치를 모르는 시계초침처럼 사색을 멈추지 않았고 번뜩임을 쓰는 순간에조차 새로운 착상이 번갯고 떠오르던 무릎을 치며 책상으로 다가가곤 하였다. 옷주머니에는 늘 종이조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새로운 착상을 기록하고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옮기는 원고지를 대신하곤 하였다. 본인자신이 달라고한것은 그 글들 단순한 원고지에 쓴것이 아니라 정대로 들에 글을 새기듯 한 글자한글자 쓰여져있었다.

운신력이조차 힘든 고희의 나이에는 또 어찌했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작품을 지도 해주시면서 조경출선생이 왜 배워지 않는다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침상에 매인 몸이 된 자신을 일찍이라도 죽시 침대에 누워 글을 쓸수 있는 의욕적생명을 만들었다. 안경을 3~4개 끼고도 모자라 확대경까지 사용하며 글을 썼다. 《홍루몽》이라고 쓴 표지를 문에 걸어 놓고 하루 24시간을 그야말로 분분초초조조가 창작에 전념하였으니 이런 불굴의 인간이 태어난것을 어떻게 해가게 할수 있겠나 아니더냐고 생각하며 글을 새기듯 한 글자한글자 쓰여져있었다.

조경출선생이 민족가극 《춘향전》을 훌륭히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훌륭하다고,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작품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안게 된것은, 고희의 나이에도 민족가극 《심청전》창작에 붙이는 정열을 바칠수 있었는 것과 그 오로지 민족과 문화, 혁명과 시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왔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체현할 조경출선생의 높은 실력과 불타는 열정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참으로 컸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조선의 대문호라고 존대하여 불러주시며 무대예술로서에서 하나의 작품이 창작되면 조경출선생이 그 작품을 보았는가고, 그가 좋다면 보자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곤 하시였다.

어머나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주신 조경출선생이 청춘의 활력을 안고 작품창작에 전념하도록 고무승용하며 100년 복은 산 삶을 보내주시는분도, 주제 82(1993)년 2월 어머니수령님을 모신 영랑의 자리에 도내내주시어 그가 수령님앞에서 마음속직정을 헌가 《위대한 명절》에 담아 한껏 터치도록 하여주시는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퍼나 오래되었던 어느해엔가는 가극 《홍루몽》을 보아주시며 이 가극은 조경출선생이 대본과 가사를 잘 썼기때문에 빛이 나는것이었고, 가극의 가사들은 어찌 하나하나가 다 금옥같은 어휘들로 다듬어져있었고, 웅대한 작가는 가극 《홍루몽》과 같은 작품을 각색해내지 못한다고, 조경출선생은 확실히 대문호이

작가와 대문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대문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산도》, 《바나의 노래》, 《용혜아》 등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때 청년들이 즐겨읽을수 있고 고전소설들을 유익하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이 용담해야 할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열정을 깎고리 바치였다.

조경출선생이 생전에 남긴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없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이 명예로운 자와 함께, 당의 믿음과 두 귀중히 여긴 인간 조경출의 모습을 되짚어 안아볼수 있다.

그는 행복하게도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장식한 가극혁명에 참가한 주인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5대혁명가극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경출선생이 쓴 가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며 가사가 아주 좋다고,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리엔 진달래로 피리엔...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민족의 참된 작가로 성장한 조경출선생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불굴의 창작정신이라고 하였다.

어머나 우리 당이 바란다면 창작의 바다가 열릴, 스무길까지도 용양 뛰어들어 일일회지, 다재다능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다방면의 문학창조를 진행한 작가 조경출.

그가 생전에 가사, 가극, 연극, 음악무용 서사시구창작, 고전소설유익 등 모든 분야의 문학창조를 막힘없이 해낼수 있었던것은 결코 그가 천부적인 작가적재능을 지니서만도 아니다.

그는 당시와 고대 시대가 요구하는 작품이려면 그것이 시대와 자신의 창작적재로 받아들여야 하였다. 당에서 노래들을 현대미감에 맞게 완성하라고 하면 즉시 그 전투에 달려붙어 《모란봉》, 《개나리》, 《어와 우리 농민들아》, 《강

진보정당에 대한 파쇼적폭거를 당장 중지하라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파키스탄 아미와인족당 신드 주위원회, 농민근로당, 자력갱생연구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를 비롯한 파키스탄의 여러 정당, 단체가 남조선보수세당의 진보세력탄압행동을 규탄하여 10월 3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피괴파당국의 책동은 우리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빼앗는 행위이다.

북과 남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을 《보안법》에 걸어서 구속하고 탄압하고있는 남조선이탈로 파쇼독재가 판을 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생지육이다.

우리는 인권활동가들과 정치가들이 남조선당국의 비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항의행동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구속된 모든 통일애국자들을 석방할것을 요구한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가 남조선피괴파당의 진보세력탄압소동을 규탄하여 10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의 쏘련공산당과 벨라

루시의 《련맹과 연맹공산당을 위하여》국제사회련합 공동성명은 최근 남조선피괴파보수세당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에 대한 어리석고도 비법적인 탄압감싸미아에 미쳐달라고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어리석은 책동은 《신과시즘》과 《메카시즘》이 판무하던 시기를 그대로 반복해 하고있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를 무마시키려는 속심도 반영되어있다. 오늘 이들의 동맹국수반들의 전화를 비롯하여 전세계를 도청하는것이 바로 《국제헌법》, 《민주주의의성서》로 자처하는 미국의 진면모이다.

조선이 남조선보수세당의 책동을 신랄히 폭로한것은 지극히 정당화된다.

우리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남조선보수세당의 모략소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로씨야의 로스토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회는 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소동을 통하여 자기의 파쇼적야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사소한 동경도 남조선에서는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통합진보당이 탄압을 받는 원인은 당국의 정책행동을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적제안을 지지하고있는데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책동을 진보적인사들은 미국의 《메카시즘》에 비하하고있으며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행위로 저들의 《민주주의》가면을 스스로 벗어버렸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거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어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진보적인인류는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책동을 정당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스트리아 헌에 있는

김정일주제사상연구청년소조도 남조선당국에 통합진보당탄압책동을 정당화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회회, 주제사상연구소조, 조선파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10월 27일 공동성명에서 좌익정당들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진보세력들의 활동이 모두 금지되어있는 남조선은 진보적사상이 무감각한탄압당하는 파쇼의 판무자, 인권의 생지육이라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진보적인 사상을 추구하고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책동을 중지하고 모든 진보적인사들을 당장 석방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네발, 핀란드정당이 남조선피괴파보수세당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책동을 규탄하여 10월 30일과 11월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네발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남조선보수세당이 피뢰피부부를 내세워 《위헌정당, 단체관련대책전문립》이라는것을 만들고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법적검토내용을 버리고있는데 대하여 이를 반민주주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탄한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여 투쟁하며 정당행동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주장하는것은 절대로 불법적인 행동으로 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파쇼적폭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을 준렬히 규탄한다.

통합진보당과 그의 하수인들은 자국의 파쇼성을 말살하기 위해 일대 공세를 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서방나라들에서도 좌익정당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은 남조선당국이 구속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하며 진보정당에 대한 파쇼적인 강제해산행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가 2일 남조선의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피괴파보수세당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과 《세누리당》은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고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해오던 통합진보당을 《중북주의적이며 위헌적인 정당》으로 몰아붙이면서 강제해산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진보세력을 제거하고 민주개혁세력과 통일세력을 약화시켜 저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태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책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우긴다고 제 땅이 되는것이 아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남의 나라 명토를 저들의 명토라고 우겨대는 소리들이 왕왕 튀어나오고 있다.

얼마전 일본의 오기나와 및 북방병트대책담당장 야마모토라는자가 기자회견이라는데 나라나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역사적으로 100% 일본의 명토라고 되거렸다.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일본반동들이 감히 남의 땅을 제땅이라고 남장도적인 주장을 공공연히 들고나오는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몰골적인 침해, 무분별한 정치적으로달아 아닐수 없다.

독도로 말하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우리 나라의 신성한 고유령토이다.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력사자료들과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A. D. 500이던 시절 독도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대대로 이곳을 어업 등의 거점으로 사용해왔다. 독도를 강건도 울진현에 소속시키는 국가적조치가 취해졌다는 A. D. 512년이였다. 독도가 우리 나라 명토라는것은 다른 나라 지도에도 물론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전 일본지도에도 엄연히 조선령으로 표기된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일본의 사료들에도 17세기 말엽 일본의 도쿠가와막부정권이 일본인들의 독도침입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독도에 불법침입한자들을 엄벌에 처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1945년 7월 26일에 채택된 포츠담선언 제8항에는 일본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조선반도는 물론 그 부속섬모두를 반환할데 대한 내용이 밝혀져있는 까리러선언을 리행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그리고 련합군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당시 일본이 인정한 공식문건들에 독도의 주권문제가 밝혀져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일본자신이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섬이라는것을 인정하였다는것

을 의미한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데 독도는 철두철미 우리 나라의 신성한 명토이며 일본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우리 나라의 고유령토인 독도를 《일본명토》라고 주장하는것은 제침을 노린 계획적인 도발행위에 다른것이 아니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일본지도와 지리책들에서 독도를 저들의 땅으로 표기하는 남장도적인 위조, 남조놀음을 벌였다.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 말까지 빼앗고 지도에서 조선말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책동한 일제가 무슨진언을 안했겠는가.

독도를 또다시 《일본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고있는것은 군국주의가 골수에 박힌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이 얼마나 무도에도 지도에서 조선을 보여주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일본과 같이 남의 명토를 제것이라고 강파를 쓰며 무례무도한것을 하는 나라는 없다.

머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명토강탈행위가 이제는 도수를 넘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이다.

지난 1일부터 일본《자위대》는 외관상합법성을 가진 합동연습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18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군사연습은 일본특해공《자위대》의 방대한 무력과 전투기술기계를 동원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외관상합법성은 일본반동들의 명토강탈야욕의 산물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조선채침의 길, 나아가서 아시아정복의 길에 또다시 뛰어들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독도 《포유권》주장과 강탈책동의 반동성과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반동들이 독도를 강탈하고 조선채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일본은 오만무례하고 파렴치하게 놀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되치 못하게 독도를 넘겨다보듯이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죄과를 씻는데 전념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렇지 않다가는 최후에 당할것이 없다.

라 명 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피괴파당이 북침전쟁무기증강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는것과 관련하여 9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50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피괴파당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무기증강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피괴파당이 자들의 침단전쟁장비증강을 비롯한 핵전쟁책동에 대해 그 누구의 《책 및 미사일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고있는데 그것은 침략적정세를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유치한 변명애 불과하다.

피괴파당의 전쟁무기증강책동은 미국의 침략적인 미사일발사위계에 가담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이 땅을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강도로서서서 민족과 세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도란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인민들의 혈세를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장비를 끌어들이는데 마구 낭진하여 미국산전

따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것이다.

피괴파들의 침단전쟁장비증강책동은 우리가 《핵사용징후》를 보이는 경우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공격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각관을 《맞춤형억제전략》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괴파당이 자들의 침단전쟁장비증강을 비롯한 핵전쟁책동에 대해 그 누구의 《책 및 미사일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고있는데 그것은 침략적정세를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유치한 변명애 불과하다.

피괴파당의 전쟁무기증강책동은 미국의 침략적인 미사일발사위계에 가담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이 땅을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강도로서서서 민족과 세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도란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인민들의 혈세를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장비를 끌어들이는데 마구 낭진하여 미국산전

기의 배를 불리워지면서 북침전쟁준비에 미쳐달려서 피괴파당이 야말로 친미사대대국역자들이며 극악무도한 호전광무리이다.

이런자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고 《명화》와 《신화》,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언에도언이 가소롭고 뻔뻔스러운 추태이다.

현실은 조선반도간강화외의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피괴파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더욱더 엄금 병정리신을 틀어쥐고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해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야 한다.

피괴파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밀적의 기강과 의지를 무마로 보고 함부로 경기방동하지 말아야 하며 자멸을 재촉하는 무분별한 전쟁장비증강책동을 견여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실패로 빚어진 미국집권자의 두번째 임기 1년

《로씨야의 소리》 방송이 보도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6일 미국집권자의 두번째 임기 1년이 실패로 빚어졌다고 보도하였다.

방송은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으로서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지 1년이 되었지만 이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실패와 추문사건때문에 별로 화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바마의 새 임기는 그에게 새로운 불행운을 가져다주었다. 그의 두번째 임기를 국제적측면에서 볼 때 자랑할만 한것이 전혀 없다.

성공적이지 못하고 게다가 국제법을 관통하게 위대한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종결한다고 선포한것이 일래는 그에게 정치적적수를 가져다주어야 할것이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미국이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한것때문에 값을 치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상기해야 할것이다.

러시아의 비나기에서 미국 대사가 살해된것이다. 이 사건과 보스니아에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는 미국투자자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오바마는 국내정책에서도 실패를 거듭하였다. 잘못된 금융에안정책과 재무 문제는 미국을 재무불리행의 계산에까지 집권시켰으며 수십개의 정부기관들이 펄스로 폐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각한 우려들이 표시되었다.

사회적질서가 흔들리고 미국인들이 앞을 내다볼수 없었으며 실업이 증대되고 사망에서 살인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마르하루스의 버락이라고 스노우먼사건까지 터졌다.

미국투자기관들이 세계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한다는 자료가 폭로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전례없는 실패로 된다. 스노우먼은 미국이 전세계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려 한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나라들과 그 수반들까지 정보수집대상으로 되었다. 이것도 오바마에 대해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실지 스노우먼이 폭로한 자료들때문에 미국과 유럽동맹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로미판계의 제가동도 미국때문에 실패하였다.

오바마의 실패는 평장해였다. 그가 시작한 요란하게 했다가 실패로 정치적출세의 막을 내린 빌 클린턴이나 부쉬2세의 운명을 되풀이할수도 있다.

에 모 말리 라 흐론

파쭈끼스판대통령으로 재선

파쭈끼스판에서 에모말리 라흐론이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었다. 그는 6일에 진행된 대통령선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로켓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

로씨야에서 전략로켓군 전력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미사일발사체계 극복능력이 향상되는데 맞게 부대들의 전투지휘체계와 장비체계를 질적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략로켓군부대들을 신형미사일종합체로 재부장시키고 미사일부대 진지구역들에 새로운 하부구조를 창설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에 노보씨비르스크와 파지의 미사일련합부대들에 신형미사일종합체를 비롯한 100여대의 군사 및 특수기술기체들이 취역하였다.

5세대전략미사일종합체로 재부장하는 사업과 함께 현존 지휘소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지휘소들을 건설하여 현대적인 전투지휘체계와 통신수단, 경비체

경제의 자립적 발전 호소

로스니아대통령 프라얀 베셀소프가 6일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자제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킬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외국투자자들이 로스니아의 경제를 발전시켜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나라 국가수반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 나서는 일이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강력한 억제력 보유를 주장

이런것을 특근 부사령관이 5일 자기 나라가 적들의 위협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적들이 이란과 나라의 무장력을 해지기 위해 각종 전쟁수단들을 동원하고 제제를 가

밀렵 반대 투쟁

탄자니아에서 밀렵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군대와

경찰이 최근 두달동안 반밀렵작전을 벌여 950여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고 104개의 상아와

각종 무기, 탄약을 압수하였다. 나라에서는 밀렵행위로 매해 1만마리의 코끼리를 잃고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폭력에 내르기발전 전망

세계적으로 폭력에 내르기 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에네르기가 밝힌데 의하면 2050년에 가서 폭력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세계 전력총생산량의 18%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현재는 그 비중이 2.6%밖에 안된다고 한다.

앞으로 폭력에 내르기리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폭력터빈은 더 커지고 든든하면서도 가벼워지게 되며 바람속에도 떠다니고 해도 정상적으로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개선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올가미를 버려야 한다

193개의 유엔성원국들중 찬성 188, 반대 2, 기권 3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물론 반대는 미국과 그에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이스라엘이었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꾸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반대하는 결의안 22년째 연속 부도적다수 찬성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것은 반제국주의를 억누르고 세계경제자유를 기어코 실현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부대표는 이번 결의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유엔헌장》의 취지, 원칙과 유엔의 규약들에 따라 할부러 꾸바에 대한 봉쇄를 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부대표는 사상정경기에 기초하고 수십년째 지속되고있는 꾸바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는 역사적인 시대착오이고 영영 사라진 《맹진》의 반영이다.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미국의 반꾸바 경제, 무역 및 금융봉쇄의 종식》의 필요성》이라는 결의의

인간 수명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세계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세계인구의 평균수명이 1990년의 64살로부터 2011년의 70살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이가 계속되고있다고 밝혔다.

불결한 화장품사용으로 피부병환자 증대

일본에서 화장품생산업체인 가네보회사의 미백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도 피부병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화장품의 사용으로 올해에 들어와 9월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만 3900여명의 피부병환자가 발생하였다.

무인기 추락

이스라엘군부인기가 4일 정보수집을 위해 올라가자 팔레스타나의 가자지대에 추락하였다. 팔레스타나의 이슬람교향맹운동 《하마스》는 성명을 발표하여 추락된 이스라엘군부인기가 자기의 수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진

필리핀의 술탄 쿠다라주에서 3일 리히터척도로 6.0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나라 화산 및 지진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진원의 깊이는 556킬로미터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